

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청문회...라임 특혜 의혹 쟁점

검찰개혁·부동산 등 정책 검증도 치열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했던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이나 환대 절차 등에 이점이 큰 라임의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총 32차례 차량이 압류됐다는 점도 소명을 요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사는 검찰권이 다소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압호화폐(가상화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

다. 여야는 이 같은 의혹, 정책 검증과 관련해 총 2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이 전 부사장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한다.

참고인은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를 포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서규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엄종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정윤 교수, 이홍교 부산시 소

방재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최지원 사회복지사 등 21명이다. 이 중 최배근 교수, 신장식 변호사, 김덕례 실장, 진중권 전 교수 등은 불출석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돼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 까지가다.

특위는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열린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

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6일 결정될 예정이다.

당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외 다른 후보자들은 당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례적인 칭찬이 쏟아졌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다양한 비리를 선보인 임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고 몰랐다는 해명만 반복했고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밑수 의혹에 대해 집에서 사용한 물품이라는 모순된 해명만 내놓았다"며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노 후보자도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관사테크 논란에 '당시엔 상황이 달랐다'며 변명만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합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은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후보 중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30번째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칼럼]이명박 정권 개각 10주년, 권불십년의 현주소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십 년 가는 권세가 없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 필자는 각자의 처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안동김씨는 60년 세도를 누렸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임금을 보면 얼굴마담 역할만 했지 이면에 실체는 늘 존재했었다. 항상 2인자라 자부하며 역대 대통령의 두 번째 권력가였던 김종필의 프로필을 보면 진정한 프로라는 판단이 든다. 1997년 야당연합(DP연합)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으며 2004년 제17대 총선이 끝난 후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의 영향력은 늘 대한민국 어디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어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을까. 그런 그가 지금은 고도소와 병원을 들락거리는 처지에 있다. 위의 두 사람 중 전자는 나름 원만한 삶을 살았고 후자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구속 중인데 나라살림의 주역을 맡도록 전직 임명된 인물들은 누구였으며 어디서 뭘 할까. 이쯤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 5월 6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쪽 개각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환경부 장관 유영숙,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이 전직 발표했다. 먼저 박재완 전 장관, 2014년 2월 부터 현재까지 한만도 선진화재단 이사장과 2016년 삼성전자 사외이사, 2018년 롯데쇼핑 사외이사, 2020년 2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 서규용 전 장관, 1973년부터 농수산 분야에 고도의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다. 제60대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다. 녹조·황조 근정훈장을 받아 공훈을 세우기도 했다. 다음 유영숙 전 장관, 제14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래 과학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현재 제5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다음 이재필 전 장관, 제3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또한 노동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다음 권도엽 전 장관,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관련 분야에 다양한 업무경력을 쌓은 바 있으며 현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미 글로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때 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자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데 함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일국의 정승이었던 사람들은 각기 내로라 하는 위치에서 살고 있다. 이명박 대장만 총대 메고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권력무상은 인류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과정을 함축시킨 결과 치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개각과 현재 재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차이를 보면 경력에 대한 다소간의 구분을 알 수 있다. 불과 10년 전 나름 신중했던 개각에도 국가 운영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대통령이 구속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모름지기 국가 운영이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총체적인 협조와 임바른 건의를 수시로 수렴하여 나라살림을 안팎으로 살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경력이 부족한 자들을 임용하여 작게는 해당 조직의 안일함을 가져오고 크게는 나라살림의 허술함을 가져올 공산이 크므로 직언보다 충성의 말로 옹호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일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고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할 마음은 없다. 다만 10년 전 오늘의 개각이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개각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우려스러운 미래를 논하는 것이다. 인사를 그렇게 잘 해도 리더는 수감 중이다. 적어도 당시 개각과 지금의 개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장관들의 프로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야당의 어슬픈 청문회도 문제 되지 않은 인사, 어차피 임명한 거 나라 살림도 힘든 데 자꾸 트집 잡을 게 아니라 잘 하길 바라지만 과연 부처의 장관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하부조직이 순수히 대표의 운영 방침을 따라줄까.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1년이면 물러날 장관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복종할까. 자고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친한 지인, 다루기 쉬운 인맥보다는 객관적으로 공사를 구분하고 잘못을 얹히 다스리며 상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10년 전 권력의 무상을 보았다. 지금의 권력이 10년 뒤 어찌 될까. 초대 대통령부터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고 부하에게 총 맞아 사망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줄줄이 구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삶을 마감 하는 비운의 대통령들이었다. 일국의 수장이 겪는 수모는 국격의 추락이자 국민들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이 모든 게 정적과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패거리 정치 문화의 폐단이며 참된 지도자 보다는 혈연·학연·지연 등 인맥 중심의 선거 문화가 빚어낸 오욕의 흔적이다. 앞으로 10달 남은 대통령 선거, 제대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 자리를 권력의 최고 봉으로 착각하지 않고 고루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으로 국민인간과 대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철학과 소신이 반듯한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언론의 대권 프레임 작업은 뜻을 달았다. 1년 뒤 청와대로 입성할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개각 10주년을 맞이하여 권불십년의 현주소를 짚어 보았다.

박광수/기자

“국민소득 3만, IT 4만, 복지는 2만달러 수준”

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 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처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높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들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에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이 진행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충 문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광수/기자

Advertisement for Namwon City Council featuring the slogan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Open Council with Citizens) and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We will create Namwon City Council). It includes images of a park (Gwanharyuwon) and a field of pink flowers (Bareobong), along with the council's logo and name.

홍성국 의원, '애들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

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라남도의회 이혁제 도의원, "목포시내 버스 휴업대비 학생 수송대책 요구"

버스업체 휴업 시, 학생 통학대란 우려...교육청에서 대책 준비해야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목포시내버스 휴업에 대비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차질 없는 학생 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목포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업 신청의 이유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기준 43억 원의 손실 발생을 꼽았는데 이들 업체가 휴업에 들어갈 경우 버스통학을 하고 있는 목포시내 중·고교 학생들의 통학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송 대책에 대하여 목포교육

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김갑수 교육장은 "빠른 시일내에 버스통학 학생 숫자를 파악하고 목포시와 협의하여 학생수송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혁제 의원은 "버스업체가 휴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약자 중 학생의 등하교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일하게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목포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 수송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목포시민의 발이 되어준 시내버스의 공익성과 지역기업의 책무를 저버리고 시민을 불모란 일방적인 휴업 통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버스 업체에 휴업철회를 주문했다.

김영만/기자

성남시의회, 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박광순 의원 등 18명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게임과물업 예방, 상담, 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5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이성윤/기자



중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창신·승인 노후 하수관로 공사 현장방문



중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은 창신·승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 공사는 우기를 대비하여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을 확대 및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 말까지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유양순 의원은 공사 예정 현장을 방문하여 중로구 관할부서 직원들 및 공사 관계인들과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공사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교통 통행 및 소음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양순 의원은 "장마 전 하수관로 정비가 이루어져 하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광수/기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된다! 황희 의원 주택법, 대안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내선 (112) 문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영등포구, 영등포차일드가족놀이터 개최

5일 영등포공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 개장



영등포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영등포차일드 가족놀이터' 행사를 마련했다.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같은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된 5인 이내 직계가족으로서,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았으며 총 333가족이 신청했다. 참여 가족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2가족이 직접 무작위 추첨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80가족이 선정되었다.

본 행사는 이달 5일 영등포공원에서 열린다. 참여 어린이와 가족들은 원형광장, 잔디공원, 풋살경기장 등 3개 장소에 마련된 22종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날의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

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주민참여 팝업놀이터도 운영된다. 아동놀이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종이상자 팝업놀이터와 함께 바닥을 이용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제와 시간대 운영을 도입했다. 회차당 2시간 운영 후 30분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회차별 20가족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해 행사장 내 이용인원을 분산시킨다. 또한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행사 당일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힘든 가족들에게 적지않게 아쉬워할 수 있는 놀이공간에서 잠시나마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노원구, 가정의 달...즐겁고 안전하게 '걷기챌린지' 도전!

노원구 주요 산책로 스탬프 투어 미션 달성 시 기프트콘 추천



서울 노원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원을 거닐 때, 가족(가장만족)'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일 어린이날 시작하는 챌린지는 15일까지 총 11일 동안 진행된다. 중랑천, 당현천, 경춘순수길,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순환산책로 총 5곳의 대표 산책로를 걸으며 각 코스별 지정 장소에서 미션 스탬프를 획득하면 응모권을 얻을 수 있다.

코스별로 하나의 응모권이 생기며, 5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5개의 응모권을 얻어 당첨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챌린지 종료 후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5,000원)을 지급한다. 당첨발표는 18일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한다.

온라인 걷기는 참가 접수 및 완주 인증 등 모두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 내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또는 함께 걸으며 참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번 챌린지 구간들은 구가 대대적인 개선·정비 사업을 진행해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코스로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의 일환으로 각 코스별로 심어진 봄꽃을 오월의 녹음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친 일상에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설치 하단의 챌린지 탭(트로피 모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순위 25위에 머물렀던 걷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걷는 도시 노원'을 선포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한 걷기 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신체활동량을 높이기 위해 워크온 앱을 활용한 온라인 걷기를 적극 권장한 결과 2020년 걷기실천율 지표에서 서울시 1위를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즐겁고 안전하게 '걷기 좋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아이들 모여라! 성동 온마을축제'랜선 와글와글'

제99회 어린이날 맞아 4차 산업혁명 기술, 직업, 외국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온라인 체험행사 마련

서울 성동구는 이달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성동 온마을축제 '랜선 와글와글'을 개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체험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컨셉의 온라인 체험을 제공하고 소규모 인원의 안전한 오프라인 행사도 실시한다.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3D 모델링, VR, AI, 메이커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카드마술, 토이쿠기 만들기 등 체험 키트를 활용하는 '집콕 직업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달 23일 성동 글로벌체험센터에서는 지역내 14명의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멕시코와 미국에서 유명한 놀이인 피나타 파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 어린이날 당일

행사 홈페이지에서 체험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성동 청소년센터 무지개극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모범어린이 22명에게 성동 어린이상을 수여하고 전문 마술사와 함께하는 마술체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구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와글와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O/X 퀴즈풀이'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수여하고 '성동 희망백신 챌린지 100'을 게시하여 코로나로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응원 메시지 영상도 전한다.

또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 집 창의 놀이 공모전'을 열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나만의 놀이법 영상을 공모해 우수 작품은 유튜브 등으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기회도 마련했다.

'와글와글'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우리 집 창의 놀



이 공모전'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행복해야 미래가 밝다"며 "이번 행사로 코로나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선물같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맘껏 즐기고 맘껏 웃을 수 있게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종로구,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온라인 화합의 장 열어'

종로구는 5월 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에서 '우리가 모르는 북한, 그들이 모르는 남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남북하나재단과 서울도서관이 주최하는 북한이탈주민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첫 강연을 시작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한의 생활용어 ▲남북한이 좋아하는 드라마 ▲평양시민의 일상 : 여느 노동자의 하루 등을 주제로 총 9회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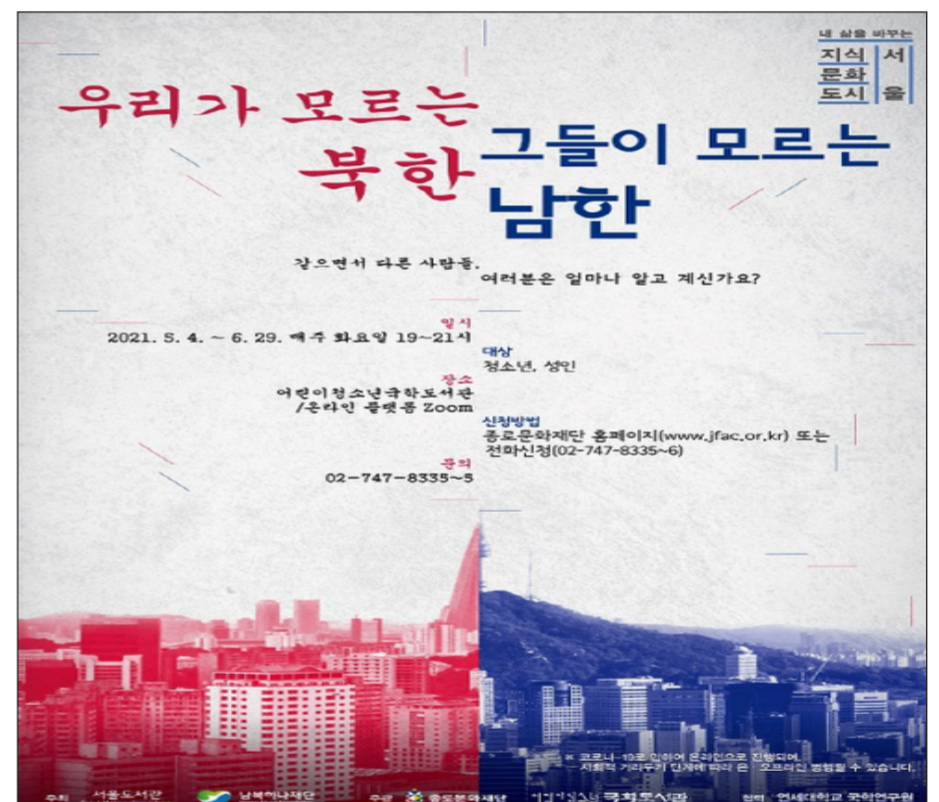
강연에 관심 있는 청소년, 성인 누구나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들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

(☎747-83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협력으로 ▲윤환철(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한성훈(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세영(연세대 강사) ▲이지연(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용운(성균관대 초빙교수) ▲이하나(사)새삼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양질의 강연을 제공한다.

김영중 구청장은 "낯설고 차별은 무지에서 비롯되듯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시민들 상호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라면서 "언어, 문화, 일상생활 등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강의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인천시 남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남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쓰고, 현재 100개인 주·정차 위반 단속용 고정형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동구는 과태료 상향 부과 및 강력 단속 시행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부착·안내문 배부, SNS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관악문화재단, 별빛내린천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관악문화재단은 찬란한 문화도시 관악을 위해 별빛내린천(도립천)에 새롭게 조성되는 '관천로 문화플랫폼(가칭)'의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천로 문화플랫폼'은 주민 중심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의 전시·공연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총 2층 규모로 구성되며 전시공연장 및 커뮤니티실, 창작실 등이 조성

된다.

6월 개관 예정인 '관천로 문화플랫폼'에서는 주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협치의 문화 공존장과 관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별빛 신사리 상권과 연계하여 생활 속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며, 공사현장을 목격할 주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접수기간은 4월 16일부터 다음달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본 공모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팀 청년문화사업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전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구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선정작은 다음달

21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민태 대표이사는 "앞으로 관악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플랫폼의 이름을 짓는 이번 공모전이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 및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관악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특별시, 1시간마다 10분 이상 '서울의 창을 열자' 범시민 환기 캠페인

실내 창문·출입문 상시 개방하고, 상시 개방 어려울 땐 매 시간 10분 환기권장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기'에 대한 생활수칙을 담은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을 가동한다.

최근 4개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30%가 환기가 불충분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서울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2,935명) 중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는 30.7%(900명)였다. 이 중 4월 발생이 38.7%(349명)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과 함께 실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음과 같은 특별한 민원 요소가 없는 이상 창문과 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되 환풍기를 적극 가동하고, 냉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 일부 개방을 권장한다.

비말 발생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환기 횟수를 늘려 영업 시작 직전, 직후 각각 15분 이상 창문을 전부 개방해 환기하도록 했다.

기존에 별도 수칙이 없었던 일반 가정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빈번한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주기적인 환기생활화해줄

것을 권고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은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방역주간 연장과 함께, 코로나 집단감염의 최대 위험 공간인 밀폐 시설 내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펼쳐지는 시민 공동 행동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은 환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1시간 마다 10분 이상 창문 개방 시 실내 공기 오염도를 1/10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냉난방·환기 시스템에 대한 지침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2021년 미국 MIT에서 실시한 식당 시뮬레이션 실험에 따르면 환기를 자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10%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발간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역시 냉난방기 가동 중 창문 개방 시 확진자 비말 고농도 영역이 절반 가량(40%→20%)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환기시스템에 대한 벨기에 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정 공간에서 오염을 90% 떨어뜨리기 위한 시간으로 맞바람 환기 시 5분, 창문 개방 시 15분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형 환기 수칙과 효과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협회들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전



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대 7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대문구, 기획·운영 직접 하는 청소년 동아리 '몽땅'지원

동대문구가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사업인 『몽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2021 동대문혁신교육지구 사업인 『몽땅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특기개발, 예술 활동, 진로,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을 몽땅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30여 개의 청소년 자율동아리에 각 동아리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월 11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명 이상과 지도

교사 1명으로 구성된 자율동아리며, 신청방법은 각 학교장 승인을 통해 5월 11일까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마감 후 5월 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동아리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몽땅 프로젝트' 운영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

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은평구가 선물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유쾌한 하루"

은평구는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제10회 은평구 어린이날 행사 '집콕! 어린이 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영유아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5월 5일 온라인 '집콕! 어린이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 이날 온라인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진행된다. '집콕! 체험활동'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린 그림 및 사진' '어린이 뮤지컬 '돼지책'' '드림 스타트 놀이 꾸러미 지원'이 등으로 구성됐다.

5월 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먼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받는다.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마련한 '집콕! 체험활동'에서는 키트를 꺼내서 조물조물 비누를 만들고,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을 완성한다. 그림이 그려진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어서 어린이들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린 그림 및 사진'에서는 어린이날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집의 상상을 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우리집 안의 풍경을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기가 불가능한 어린 영아들은 사진을 찍어서 어린이집으로 작품을 보낸다. 5월 5일과 6일까지 작품들을 모아서 온라인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작품을 올리면 온라인 미술 전시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전시회는 5월 10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늦은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뮤지컬을 관람한다. 어린이 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다. 뮤지컬은 5월 5일 하루 동안 원하는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도 맞춤형 선물과 간식을 각 가정으로 꾸러미를 통해 지원해준다고 하니 함께 즐기는 더 뜻깊은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린이날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어 무척 안타깝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체험활동을 준비했으니, 어린이 친구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은평구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코로나 선별검사, 예방접종을 통해 은평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아이가 행복한 광진... '광진구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아동친화 사업별 현황을 정리한 '2021년 광진구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광진구가 아동친화 사업별 예산 현황을 분석한 '2021년 광진구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동친화 예산서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 사업을 대상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등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4대 권리로 분류해 정리한 예산서이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살피고, 향후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게 된다.

2021년 광진구 아동친화 예산은 전체 구 예산 대비 24.1%를 차지한 총 1423억 원이며, 30개 부서에서 1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올해 아동친화 예산은 전년 대비 18.3%가 증가하였고, 사업 수는 26개가 늘어나 전년 대비 25.4%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구 자체 신규사업으로 광진맘택시, 임신부 가사물품 서비스 지원 등 구민 체감형 사업과 함

께,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 청소년 독서실 운영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구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아동친화 예산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생애주기별복지-아동친화도시-아동친화 관련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갑 구정장은 "우리 구는 '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광진' 조성을 목표로 아동의 생각과 눈높이가 반영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조성 마무리로 위험 요소 적극개선

2020년까지 생활안심디자인(CPTED) 안전마을 17개 동 25개소 조성 완료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17개 동에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을 25개소 조성을 마치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 주민의 지역만족도가 향상되고 범죄율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했던 안전시설물 점검을 수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파손 등을 조기 발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보다 더 주력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안심 디자인'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사근동을 시작으로 전체 17개 모든 동에 확대하였다.

지난해 정기점검을 통해 용담동 공원 놀이터 울타리 흔들림, 송정동 안심풀 노후화, 마장동 안심정거장 누수 등을 확인했다.

올해는 노후시설을 보수 및 철거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새로 확인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송정동 안심풀과 사근동 비상벨 및 태양광발전기, 금호4가 비상벨 안내 사인을 철거하고 마장동 안심정거장 누수와 용담동 꽃공원 놀이터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마장동 솔라 표지병을 교체하고 송정동 계단조명과 수목조형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정장은 "안전마을 사업은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신도적인 성동구 셉테드 사업이 전국적인 안전마을 확산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투기조사결과발표

연구개발특구 및 주변지역 14,514필지를 대상으로 6,839명 부동산 거래 조사

부산시가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자체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

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진행하여 ▲1건은 토지취득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정황을 발견 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직원 본인(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1,466명(100%), 직원가족은 부산시·강서구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761명(95.7%)이고, 퇴직자(본인, 가족포함)는 부산시·강서구는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이다.

또한,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6,000여 명 정도로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어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라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조사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인천시 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태양광 이동형 CCTV 운영



인천 서구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42대를 추가 설치해 총 208대의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조사하고 CCTV 설치를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8대가 반영돼 있어, 주민들이 직접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이동형 CCTV는 신속한 이동설치는 물론, 태양광 패널이 부착돼

있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배터리만으로 작동되는 이동형 CCTV보다 배터리 지속기간이 늘어 더욱 무단투기 경고 방송 송출, LED 경고판 등의 기능과 함께 무단투기 단속·예방에 특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 관계자는 "이동형 CCTV 추가 설치로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단배출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안양시 불법주정차 구역,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양시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시스템 운영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구역을 사전에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시스템을 운영한다.

안양시 동안구가 관내 업체인 네비웍스와 협업을 구축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는 불법주정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불법주정차 집중신고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운전자가 받기까지는 10~20일이 걸려 그 전까지는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운전자는 한 번에 5~10건 이상의 고지서를 받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신고하는 시민들 역시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관내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개 구역을 선정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을 설



치했다. 이를 통해 미리 불법주정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운전자와 신고자 양측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민원과 사고로 인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스템 설치 구역마다 부착한 설문조사 QR코드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준규기자

부안 보안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개

부안군 보안면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군과 병행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안면은 2개반 4명의 기동반을 구성해 5월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후 적발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를 붙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 하천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영농철 농업부산물 불법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면은 지속적으로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시 및 경고판 설치와 불법쓰레기에 스티커 부착등,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신철호 보안면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보안면을 만들 때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쓰레기 불

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하였으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스마트 교통 도시 대전에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도 바로 확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선정으로 행정신뢰성 높여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난해 선정된 불법주정차 단속·허용구간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

이번 선정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은 지난해 구축한 단속·허용구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정보를 추가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민간 앱이나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구간정보를 제공해 무심

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발생시 정확한 단속위치를 공개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구축한 단속 및 허용구간(불법주정차 단속·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로변 주차허용) 495개소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이번에 구축되는 자료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의 구간정보 등 25,000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으로 지역업체와 사전에 매칭해 공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지역업체에 국비 2억1100만원과 청년인턴십 인력 5명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인 행정정보 개방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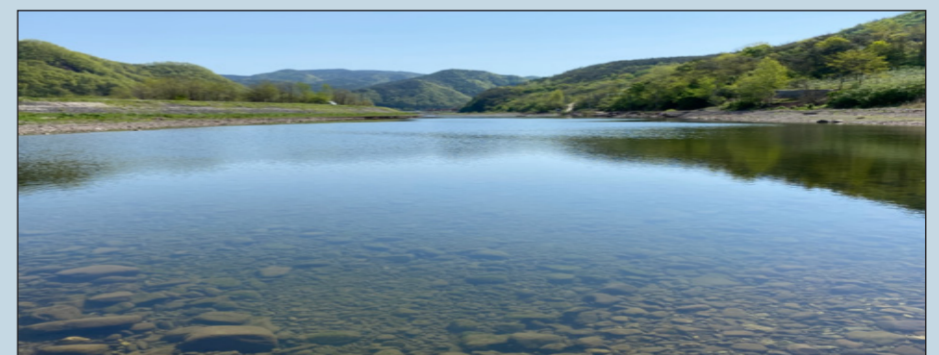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교통소통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년 1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영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 '단속 실시'



영양군은 올해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 단속기간을 5월 ~ 11월로 정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과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날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원을 편성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

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영양군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권영석 농업축산과장은 "5월 산란기 이후에도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하남시, 경기정책공모 3년 연속 본선 진출 '최소 60억 확보'

하남시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에 참가해 2019년·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본선에 진출,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6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3년 이상 연속 본선에 진출한 것은 하남시, 파주시, 군포시뿐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 공약 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을 대규모사업과 일반규모사업으로 구분, 도 내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 위례신도시 내 복합 체육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삼.위.일.체 한지붕 세 가족 건강한 동행'사업으로 대규모사업 분야에 참가했다.

대규모사업 분야에는 시를 포함 20개 지자체가 참가해 지난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선에 진출할 하남시 등 4개 지자체가 3일 최종 결정됐다.

본 사업은 하남시 학암동 87번지 일원(위례 체육용지 3) 부지 3000㎡, 연면적 6900㎡, 지하1층 ~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한다.여기에는 수영장, 가상



체험(VR)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교실 등 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아동) 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하남·송파·성남 등 3개 지자체 위례 주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설치된 후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했다.그러나 이중 '생활체육시설 확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시의 공모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와 성남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하남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사업은 조성원가 토지 공급 등 조기착수가 가능하고, 3개 지자체 6만 여명 주민이 도보 또는 자전거로 10분대만 이용 가능해 주민 수혜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비심사에서 김상호 시장이 직접한 사업설명 PT는 심사

최정근기자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 시장은 "복합체육시설인 삼위일체는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고 열병합발전소라는 기피시설만 있던 하남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삼위일체로 한 지붕 세 가족 위례동 주민은 하나 되고, 함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김 시장은 2020년 80억원을 받은 '공유와 나눔 생활애(愛),疏(소),始(시) 사업'과 2019년 60억원을 받은 '하남시 소북(疏)마당 사업'의 사업설명 PT도 직접해 기여한 바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투입, 신도시인 미사지구의 부족한 학교·문화시설 확충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생활 SOC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원도심인 덕동동 옛 시청사 부지에 '시민행복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공모의 본 심사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본 심사를 통해 대상 100억원, 최우수 80억원, 우수상 60억원을 받을 지자체가 결정된다.

최근수기자

시흥시, 제99회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시상



시흥시는 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복지 유공자 및 모범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4명과 아동의 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6명 등 총 10명이 표창을 받았다.

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만 진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시흥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만나고, 또 뜻깊은 상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아동친화도시 시흥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밝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됐다. 아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존과 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별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 변경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신청할 수 있어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정근기자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5. 10(월) ~ 5. 28(금)

지원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1인가구 미혼 청년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제한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정부 청년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임대인의 신청일 기준 부모인 경우 등

모집영역
모집영역: 1. 100명 (다자모집 선착순 마감)
지원내용: 1.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세금공제, 전·월세차별세율 제외)
2.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 지원
3. 지원시기: 1. 2회 분할지원 (7월, 9월 분할, 9월, 10월)
※ 신청사항 홈페이지에 꼭꼭꼭 보고

문의: 수원시 청년지원팀 031-324-3325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

용인시, 오는 5월11일부터 관내 245곳 대상

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현행: 8만원 (일반도로의 2배)
개정: 12만원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지정남부시 (19년 10월 7일 내)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이하)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문의: 용인시 교통정책과 ☎031-324-3325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5월 가정의 달 '롤루랄라 우리 가족' 카툰 전시 개최

5월 5일부터 한국만화박물관 로비,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동시 개최

'롤루랄라 우리 가족' 카툰 전시 개최 한국만화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카툰협회와 함께 '롤루랄라 우리 가족' 전시를 선보인다.

가족사랑 카툰전 '롤루랄라 우리 가족'은 한국카툰협회 소속 작가들이 가족을 소재로 그린 44점의 카툰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1년 넘게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 우울한 현 시대에, 카툰 작품으로 위로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과 구성원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건강한 사회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에서 5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카툰전은 개최되며, 5월 19일에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동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관람하기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5월 5일부터 44일 동안 한국만화박물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에 한 작품씩 공개한다.

전순희기자

가족사랑 카툰전
롤루랄라 우리 가족

2021. 5. 5. 수 - 6. 6. 일 한국만화박물관 로비
2021. 5. 5. 수 - 5. 12. 수 부천역 마루광장

광명시, 민선7기 공공공정공감의 가치 실현... 청소년카페 '마루' 개소

박승원 광명시장,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이어져 공공, 공정, 공감가치를 이뤄내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

광명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건물인 광명시 연서도서관 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운영하는 카페 '마루'를 설치하고 지난 5월 3일 개소식을 열었다.

광명시는 안과 밖을 이어주는 공간이란 뜻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서로 이어져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과, 산꼭대기의 뜻처럼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 카페 이름을 '마루'로 지었다.

카페 마루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이 카페 매니저로 일하며, 청소년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하는 작업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공공시설에 문을 열었다.

특히 청소년카페 마루는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고, 지역 내 공정무역 상품을 홍보하는 등 공정무역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텀블러 재순환캠페인(테이크아웃 시 텀블러사용) ▲쌀빨대 사용 ▲친

환경제품사용 등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등 공정의 가치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3일 열린 카페 마루의 개소식에

전순희기자

는 박승원 광명시장, 시의원, 시민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청소년 작업장의 개소를 축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안과 밖을 이어주는 공간이란 마루의 뜻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이어져 서로가 성장할 수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카페 마루가 우리사회의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카페 '마루'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인 자립기술훈련(바리스타 자격증반), 직장체험 등을 연계하여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내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알린다... 무빙온 서포터즈 모집

MOVING ON
다문화문화관광기업

독특 튀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MOVING ON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성남시 무빙온 서포터즈
무빙온 프렌즈!
서포터즈 모집

모집 대상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무빙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누구나
·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용에 능숙한 자 (개인 SNS 1개 이상 보유)

모집 일정
· 모집기간: 5월 4일(화) ~ 5월 17일(월)
· 합격자 발표: 5월 21일(금) / 개별 통보
· 활동기간: 5월 28일(금) ~ 9월 14일(화)

활동 내용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무빙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 지원

접수 방법
· 사진 미션 완료 후,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무빙온 홍보 담당자 메일(jsh@withculture.com)로 제출
· 사진 미션: 개인 SNS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무빙온을 자유롭게 소개

혜택 내용
· 소정의 활동비 제공
· 서포터즈 위촉장 발급 및 우수 서포터즈 표창장 수여

문의
· 무빙온 홍보 담당자
· 전화번호: ☎ 070-9057-1513
· 이메일: jsh@withculture.com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BI를 '무빙온(MOVINGON)'으로 정하고, 이를 홍보할 15명의 서포터즈를 오는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는 위례 비즈밸리~관교1·2·3테크노밸리~백현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공·컨벤션·전시)~분당 벤처밸리~정자 바이오·헬스 단지~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BI인 무빙온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남"을 상징한다. 사람, 혁신, 문화, 네트워크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나가려는 도시 첨단산업화의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5월 28

일부터 9월 14일까지 '무빙온 프렌즈'로 위촉된다. 이 기간,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브랜드 정체성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 활동에도 참여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한 내에 자신의 SNS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무빙온'에 대해 소개하는 글 또는 영상을 올린 뒤 지원서(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무빙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열정 넘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참신한 예술 실험, 부천시 도전하세요!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공모를 열고 5월 16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바로 그 기획 ▲우리동네 스무발자국 ▲도시 사파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4가지다.

부천문화기획학교 입문과정 '바로 그 기획'은 문화기획자 활동을 희망하는 입문자들을 위해 관련 기초지식과 실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 기간은 6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1회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강사는 말벗하는 문화기획자 '김유진', 문화기획자 겸 교육공학자 '설동준', 문화융역 '주성진' 등 3명이며, 총 2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은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1년 이상인 부천 소재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총 4개 단체를 선정해 연구개발비 등 1곳당 최대 400여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등도 마련해 역량 강화의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친화 문화공간 발굴 '우리동네 스무발자국'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 등 문화예술 경험을 즐기며 교류할 수 있고, 운영자는 공간만의 특색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다. 공간 발전에 대한 갈등을 문화예술로 해소해 볼 수 있는 기회로 15개 내외의 공간을 선정해 1곳당 최대 9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 예술 투어 '도시 사파리'는 예술가의 창작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이다. 부천에 작업실을 갖고 활동 중인 예술가라면 신청할 수 있고 7곳 내외를 선정해 1곳당 최대 7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지역 문화공간과의 교류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당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통합 공모 사업들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을 주고, 지역 예술인에게 참신한 예술 실험과 지역에서의 발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유주기자

문화공간 LAB
우리동네 스무발자국

부천 문화예술 LAB
예술로
관계 맺기
문화로
먹고 살기
@문화도시 부천

도시 사파리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바로 그 기획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산골오지 '경북 영양군'의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사태로 영양산나물의 판로가 막혀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가도 돕고 몸도 좋은 청정지역 영양군의 산나물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요!

2021.4.21 ~ 5.21

영양군의 산나물은 4월 21일부터 사이소 및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사이소

영양군 | VTC 영양축제 관광재단

통영시,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점검 실시



통영시는 21년 04월 27일 ~ 04월 28일 이틀에 걸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개 권역(11개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통영시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로 2019년 5개소, 2020년 5개소, 2021년 2개소 등 총 1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생활 SOC를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어촌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상 교통의 이용과 어업활동 등 주민들

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후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문제 부분에 대해 행정기관, 발주처, 주민 간의 대화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위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강석주 통영시장은 “모든 현장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방역 준수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및 어촌지역 활력 도모”를 당부하였다. **강영훈/기자**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현장활동 소방대원 격려 방문

새로 도입된 무인파괴방수차 시연 참관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3일 오전 김해서부소방서를 찾아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해서부소방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무인파괴방수차의 시연에 참관하고 진례 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전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최초로 무인파괴방수차를 도입하고 김해서부소방서에 배치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창문을 파괴·천공한 후 원격으로 방수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이다. 폭발 및 붕괴의 위험에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한 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공장 등 소방대상물 14,682개소가 있어 대형화재의 위

험이 높은 김해 서부지역의 대형화재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무인파괴방수차의 시연을 참관한 후 “제가 김해를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때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이 결정됐다”면서 “당시에도 김해 공단지역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기존 장비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중장비(건설기계)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며 꼭 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을 반겼다.

이어 “늘 소방관 여러분이 안전해야 도민도 안전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251명의 소방관이 도민 253,969명(100,588세대)과 230.38km²규모의 김해 서부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월평균 출동건수는 화재 22건, 분마다 도민의 도움 요청을 받고 구조 486건, 구급 992건이며 1일 소방차에 오르내린다. 평균 신고건수는 120건으로 매 10 **최광용/기자**

밀양시, 2021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거점 공모 선정

국비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받아..관광명소와 한복 연계한 콘텐츠 개발 나서

밀양시가 한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발굴과 상시적으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며,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대 3억원(국비 1억 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1월까지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밀양, 한복연가 그 아름다운으로의 초대’라는 컨셉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총 16개로 10개의 대면사업과 6개의 비대면사업으로 구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시, 홍보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면사업의 경우도 자체 방역전담조직을 구성해 철저한 방역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장소인 미리미동국은 영남루, 의열테마거리, 밀양향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식을 체험하고 규방공예 등과 결합해 시내권역 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규 관광진흥과장은 “지역의 관광자원에 한복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더하는 좋은 계기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복의 대중화와 일상화는 물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시, 제2회 치매예방 가족 편지 쓰기 공모전 개최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가족 편지 쓰기 공모전

공모기간 : 2021. 5. 1. ~ 5. 20.

공모자격 : 진주시민

출품양식 : 자유로운 형식 편지 1매 이상 (글, 그림 가능)

공모주제 : 치매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신청서 : 진주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수상자 발표 : 2021.5.31.(월) 오후 4시

10명(모바일 상품권 1매 제공)

문의 전화 : 749-5778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jylovekks1@korea.kr)

우편접수 (진주시 월야산로 2026 6번 상담실)

진주시는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4월에는 제1회 한마음 치매 극복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치매 예방에 좋은 다양한 운동 사진 출품작 중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이번 치매예방 가족 편지 쓰기 공모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치매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공모전 접수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주시와 진주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자유로운 형식의 편지(1매 이상)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수상 작품은 5월 31일에 개별 연락 또는 진주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수상자 1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모바일로 증정된다.

선정작은 향후 소셜네트워크 콘텐츠로 활용되거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족 간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족 사랑의 마음을 편지를 통하여 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치매안심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형 치매관리 시대를 열다

사천시치매안심센터가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해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인지강화 치매환자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말까지 관내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로봇 ‘다솨이’를 활용한 치매안심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거 어르신, 노부부, 거동 불편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예정인데, 이를 가정에 각각 AI(인공지능) 로봇 ‘다솨이’를 설치한 후 홈페이지와 어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AI(인공지능) 로봇 ‘다솨이’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동·체조·영양지도 프로그램, 두뇌건강놀이책을 함께 공부하는 인지재활훈련이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말까지 관내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로봇 ‘다솨이’를 활용한 치매안심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거 어르신, 노부부, 거동 불편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예정인데, 이를 가정에 각각 AI(인공지능) 로봇 ‘다솨이’를 설치한 후 홈페이지와 어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 알람기능을 이용한 복약 및 신체활동 지도, 로봇의 치매돌봄 콘텐츠를 이용한 치매지원프로그램, 메신저기능을 이용한 치매관련 최신정보 및 어르신 건강관리법도 안내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말벗기능을 통해 ‘다솨이’와의 소통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고, 긴급·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도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불편사항 개선으로 ‘다솨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AI(인공지능)로봇 치매환자관리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령층의 건강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부산시 북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답사

부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4월 29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BMC’ 추진을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인 ‘산리협동조합’과 ‘전력질주협동조합’을 답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사업 수행기관인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북구와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답사를 통해 사회보장특별

지원구역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독주스 만들기’를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이지연 과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덕천BMC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희 구정장은 “사회보장특별

지원구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복지수요를 지역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산 사회복지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BMC’는 주민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농기원, 농촌진흥청과 디지털농업 협력 강화

센서기술,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로 경북 농업 혁신 방안 마련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부장 오명규)와 상호 협력하여 노지 디지털 농업 전환을 통한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경주시지역의 '논콩 디지털농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의 대표작물인 콩은 재배면적(10,000ha)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재배지인 경주의 콩 생산량은 136톤이지만 두부, 순두부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콩의 소요량 1,500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장마 등의 기상이변으로 콩 생산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콩 꼬투리가 맺히는 8월에 가뭄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수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콩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논에 콩을 재배해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광원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경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지 콩 재배 디지털농업 현장실

증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노지 콩 디지털농업 모델'은 먼저 트랙터 부착형 무굴작 망속 배수기술을 적용해 지하수위를 조절하고 토양 수분 센서를 설치하여 수분과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용해 논콩 노지 재배시 가장 문제되는 장마시 습해 등 병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수분 센서를 접목해 최적화된 재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랑을 만드는 동시에 콩을 파종하고 드론과 해충 포획용 스마트 트랩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며 콩을 재배하는 기간 동안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생육정보를 수집하고 무선통신 센서를 통한 재배환경 정보를 측정, 제어하도록 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하여 생산과 유통을 통합 관리하여 경주시를 생산-가공이 연계된 '신농업혁신타운'으로 조성, 디지털농업의 성공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와 공동으



로 '고추와 마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망속 물 공급기술'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복숭아 등 과수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승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는 디지털농업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구글, 바이엘 등 다국적기업의 디지털농업 투자

액은 64억 달러에 달한다"며, "기술 혁신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없이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상북도 농업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가(家) 꿈세상' 가족봉사자 모집

이달 10일까지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는 자원봉사 이야기 가(家)꿈세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0일까지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는 자원봉사 이야기 가(家)꿈세상' 프로그램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꿈세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소통하고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1회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는 가족 유대

관계증진 프로그램 △2·3회차는 자원봉사활동 체험활동(헨즈온·볼런투어 프로그램) △4·5회차는 우리 가족만의 자원봉사활동 기획 및 활동기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반식기자

맛있는 봉화사과 고급 와인으로 재탄생! 대박 예감

사과 소비촉진, 부가가치 창출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혼술족과 흡술족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와인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와인 소비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맥주, 소주, 위스키 다음이며, 이마저도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저렴하고 다양한 수입산 와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와인 춘추전국시대에 10여 년의 부단한 연구 끝에 고급 국내산 사과와인을 개발해 오르도(해뜨는 언덕)라는 대표 상표로 당당히 도전장을 낸 최유진·장경희 씨 부부가 있다.

이들 부부는 봉화군 춘양면에서 직접 재배한 사과를 가지고 애플화이트와인, 애플로제와인 2종류, 국내에서는 드물게 소위 샴페인이라고 일컫는 스파클링 와인도 2종류, 지역의 포도로 만든 포도레드와인 등 모두 5종을 개발했다. 와인의 특성상 재맛을 갖게 되는 제조 후 4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시판에 나선다고 한다.

이들 부부가 춘양면 서벽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맞은편에 귀농해 사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15여년 전이다. 수목원 조성 이야기조차 없던 시절 이들 부부는 서울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곳 산비탈 돌나들밭을 구입하여 사과재배를 시작했다.

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편 최유진 씨는 국제 무역 일을 하면서 세계의 여러나라 와인을 많이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고급 와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가 오르도 와인을 제조하는 곳은 백두대간 옥돌봉 아래 해



발 600 고지. 밀리는 해발 1,207m의 문수산을 마주하고 가까이엔 문화재청이 특별 관리하는 춘양목소나무숲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핵심시설인 씨드볼트를 지척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고즈넉한 소나무숲과 사과밭으로 둘러 쌓여 새로운,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밤엔 쏟아지는 무한한 별빛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만의 제조기법을 가지고 지역의 봉화한약우 등 뛰어난 식재료와의 조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한다. 또한, 서로 다른 이종들간의 과실주들을 블렌딩하여 독보적이면서 한국인 입맛에 맞는 다이닝용(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드라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사과가 주종인 오르도 애플화이트와인'케이의 사계, Seasons of K, 사과 100%'과 오르도 애플로제와인'롤링, Rolling, 사과 95% + 산머루 5%'은 두 제품 모두 한식을 비롯

해 양식, 일식, 중식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한국 식습관의 특장인 한상 차림 또는 반찬 문화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

포도가 주종인 오르도 포도레드와인'타임, Time, 포도 85% + 산머루 15%'은 봉화한약우 같은 한우숯불구이에는 더할 나위없는 궁합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과가 주종으로 탄산가스를 가미한 오르도 애플화이트 스파클링와인'비앙코, Bianco, 사과 100%'와 오르도 애플로제 스파클링와인'로소, Rosso, 사과 95% + 산머루 5%'는 축배주 뿐만 아니라 일반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다이닝 와인으로 손색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와인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진 프랑스 샴페인이 미디엄바디(중간정도 무게감)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들 두 제품은 세계 최초의 풀바디(무거운 무게감)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이들 와인제품들은 2020년 12월

매일경제가 주관한 설날에 마시기 좋은 베스트 한국와인 콘테스트에서 오르도 애플화이트 스파클링와인'비앙코'이 금상, 오르도 포도레드와인'타임'과 오르도 애플로제와인'롤링'이 은상을 수상하였고, 오르도 애플화이트와인'케이의 사계'은 동상을 수상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와인 재료인 봉화사과도 한 몫을 했다. 봉화군은 전국에서 5번째로 사과를 많이 재배한다. 봉화사과는 풍부한 일조량을 먹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아래 사질양토에서 재배된다. 특히, 봉화의 가을철 큰 일교차는 사과의 빛깔을 결정하는 안토시아닌 색소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 내 사과 맛이 우수하다.

최근 이들 부부는 오르도 와이너리 공장옆에 단칸방 2개로 휴재원이라는 펜션을 개원했다. 과수 농사부터 와인 작업만 해도 년중 열손가락이 모자랄지경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와인을 맛보고자 하는 분들의 안전 운전을 생각해서였다.

최유진 대표는 와인의 원재료가 좋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우리 입맛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사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다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사과는 다년간 봉화군의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돼 각종 대외 입상은 물론 대만·베트남·러시아 등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봉화사과를 활용한 오르도 사과와인 개발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양군, 상반기 가축전염병 일제 접종 시행

영양군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소, 염소, 개 등 3,590마리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상반기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방역사업의 하나로 소, 염소, 닭, 개를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철에 시행되며, 이번 접종에서는 모기 매개성 질환인 소 유행열, 소 아카바네병을 비롯해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중요시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등 총 6종에 대해 접종이 이루어진다.

특히, 임신한 소에 감염되어 유산을 유발하는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인 소 유행열과 소 아카바네병에 대해서는 모기 발생 전 예방백신 2,040마리분을 축산 농가에 사전 공급해 5월 중순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사가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농장 소독상태 점검 등 예방 활동과 함께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발견 시 행동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권영석 농업축산과장은 "영양군이 질병 없는 청정 지역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수"라며, "이번 상반기 예방접종은 한 농가도 빠짐없이 반드시 해 달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영덕 괴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 30일 간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정



경상북도는 문화재청에서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영덕 괴시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는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 간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국보 2건, 보물 30건, 사적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무형문화재 3건, 국가민속문화재 4건 등 총 4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018년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제9차)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한 '영덕 괴시마을'을 문화재청에서 2021년 5월 3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할 예정이다.

'영덕 괴시마을'은 인조 8년(1630년) 영양 남씨들이 정착한 이후 그 후손들이 40년간 세거해 온 집성 반촌이자 전통 마을로 고려말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1328~1396)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다.

마을 내에는 영양 남씨 괴시파종택(경북 민속자료 제75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고택과 서당, 정자, 재사 등 문화재 17동과 비지정 전통건축물 약 20여 동이 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생활과 민속, 신앙, 의례 등 전통적 관습과 문화가 함께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내 주택은 대부분 경북 북부지방 반가의 전형적인 평면과 배치를 기본으로 시기별로 평면과 구성에 부분적인 차별성을 보여 영남 지방 주거 형식의 시대별 변천과 특징을 연구하여 있어 위상이 높은 중요한 역사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 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보존관리하는 한편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스테이 등을 적극 실시해 우리 고유의 유교 윤리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내 문화재 중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통해, 경북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북도, 출산취약지 임신부 위한 교통비 지원

7개 출산취약지역 임신부에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전북도는 도내 7개 군지역 임신부의 산전 관리와 분만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10주 이상부터 분만까지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진찰 과 분만이송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 이송비 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분만시 10만 원, 산전진찰 1회당 4만 원 등 최대 58만 원의 교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 16주 이상에서 10주 이상 임신부로 확대했다. 또, 지원 횟수도 9회에서 13회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 등을 수렴해 수혜 혜택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실시한 「2020년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7.7%를 기록하는 등 수혜자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이용자는 “거주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함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없



이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가공모 사업으로 산부

인과 설치운영을 기존 2개소(고창병원, 진안군의료원)에서 3개소(남원의료원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송일/기자

김제시 “2021년 다문화엄마학교” 새롭게 출범



김제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4월 초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2세대를 대상으로 “제5기 엄마학교”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엄마학교는 국어, 수학 등 총 7개 과목을 총 5개월 과정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졸업생의 경우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다문화 엄마학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학습과 보충 교육 담당과 엄마 역할에 대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4기까지의 과정이 마쳐진 상태로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직접 교육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문화세대 엄마들에게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자기계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해를 거듭 할수록 신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다문화 엄마학교는 김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세대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정읍시제54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8일 황토현 전적 일원에서 개최

최소 인원만 참석... 기념식·시상식 등 공식행사만 진행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8일 정읍 황토현 전적 앞마당에서 열린다.

‘동학, 새로운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올해 기념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온라인 기념제’로 진행된다.

매년 2~3일간 열렸던 기념제가 올해는 8일 하루만 진행되고, 체험마당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전면 폐지하며 행사내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념식과 시상식(동학농민혁명 대상,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대상), 구민사 제례,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등 공식행사만 진행된다.

행사는 참여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기념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기념제는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황토현 전적(사적 제 295호)에서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와 기념식, 기념공연을 진행한다.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는 사발통문 작성 행사와 폐정개혁안 낭독, 헌향·헌화, 고유문 낭독, 참석자 헌화 순으로 진행되며,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소천한 농민군의 영령을 추모할 예정이다.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는 조직위원장의 헌축을 시작으로 독축, 헌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례는 유진섭 시장과 계승사업회 김영진 이사장이 각각 내집사와 외집사를 맡고, 여성을 대표해 미안마 출신의 이주여성이 아헌을 맡을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성희 시장의 ‘새가 운다’를 시작으로 이영현의 ‘아름다운 나라’와 ‘BUTTERFLY’ 알리의 ‘걱정 말아요 그대’, ‘아름다운 강산’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서희 양은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르며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제를 통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취임을 재확인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의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한층 더 계승 발전시켜 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계승사업회는 행사장 방역과 마스크 의무착용, 손 소독 등을 바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념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확정 의결

2023년까지 공동체창업·교육·공유공간 등 5개 중점 사업 전개



지난 2019년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는 4월 29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남원시의 기본계획 확정을 받은 남원시농림식품수산부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본 사업 공동위원장인 전경식 남원부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17명과 남원신활력플러스 사무국 등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한국지역개발연구원하는 지리산권 공동체 모델 구축이 남원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행복도시 남원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남원시가 확정된 남원신활력플러스사업은 5월 도 및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고시를 거쳐 오는 6월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액션그립 및 신활력 활동가, 지역 청소년·지역리더 교육, 지역활력공작소 구축 등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리산 마을대학 운영 ▲지역활력공작소 개설 ▲주민주

도 생활공동체 사업 ▲주민주도 경제공동체 사업 ▲신활력추진단 운영 등 5갈래다.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혁신적인 도전을 통한 의미 있는 유무형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주문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경식 남원부시장은 “장기적인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남원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에 박차를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역생생·순환하는 지리산권 공동체 모델 구축이 남원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행복도시 남원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박성일 완주군 군수 "지금은 비상시기, 부서협업 나서야"

박성일 완주군수는 3일 “지금은 비상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내실화 등 현안 추진에 있어 각 부서가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백신 예방접종, 역학조사, 비상근무 등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편성과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휴식 보장을 위한 보호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백신 이상증상 발현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숙지

하고 대비대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접종률 제고를 위한 대주인 홍보도 지속해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또 신규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해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주민 편의와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한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군수는 이어 “수소 시범도시, 상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 제조 지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도

관련부서와 전문가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주요 현안사업들은 주민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국비확보 대응 사업 역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특색 있는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도와 정치권과 협치를 하는 등 연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설교했다.

박 군수는 “‘완주 챌린지 100C’와 ‘에이스(ACE) 아카데미’ 등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다수의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김제시 “2021년 다문화엄마학교” 새롭게 출범

김제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4월 초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2세대를 대상으로 “제5기 엄마학교”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엄마학교는 국어, 수학 등 총 7개 과목을 총 5개월 과정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졸업생의 경우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다문화 엄

마학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워 자녀의 가정학습과 보충 교육 담당과 엄마 역할에 대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4기까지의 과정이 마쳐진 상태로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직접 교육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문화세대 엄마들에게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자기계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해를 거듭 할수록 신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다문화 엄마학교는 김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세대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무안군-무안교육지원청,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농촌협약공동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농촌협약, 농산어촌유학 등 정부공모사업 공동대응

무안군과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30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및 농촌협약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안군이 준비 중인 농촌협약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의 미래교육 발전과 농촌협약 교육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과 상생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촌협약 미래교육 기반구축 분야의 중장기 전략과 활성화계획 수립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 읍면별 특성에 맞는 교육기반 구축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사업 발굴·추진 ▲마을학교, 방과후학교 등 교육관련사업과 커뮤니티시설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등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연계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협약,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농산어촌유학 등 정부 공모사업에 공동대응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해 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등을 공동추진 함으로써 교육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은 농촌협약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군이 직면한 도농 불균형, 농촌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과 함께 찾아보자는 새로운 시도이다"며 "전남의 수도 교육플랫폼 무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촌정책 추진체계로 지자체가 지역 생활권이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계층구조, 인구사회 현황과 전망 등을 분석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면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조기석기자

전라남도, 보조금 찾아다니지 말고 한번에 확인하세요

'보조금24' 개시...정부24주민센터에서 통합 안내



보조금, 찾아다니느라 힘드셨죠?

이제 찾지 말고 접속(O)하세요!



내게 맞는 정부 혜택은 정부24에서 쉽고 편리하게



전라남도는 도민이 그동안 어디에 신청할지 혹은 수혜 대상자인지를 몰라서 받지 못했던 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305개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금지원 171개, 의료 지원일자리 돌봄 등 84개, 이용권 27개, 현물 지원 23개 등 서비스 정보를 개인의 나이와 가구 특성, 복지 대상 자격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기관별 누리집에 각각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줄게 됐다.

김장길기자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본인이 받을 혜택과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혜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도내 29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보조금 혜택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6천여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하고, 2022년에는 공공기관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보조금24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도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더 쉽고 간편하게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2021 강진 GOOD 페스티벌' 개최

8일까지 강진읍 상권활성화권역 및 주요 관광지에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강진군은 5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강진 GOOD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강진 GOOD 페스티벌은 'Go 강진, On 축제, Off 스트레스 Do 미션투어'의 약자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액티비티 미션투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션 투어', '라이브 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액티비티 미션투어'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 1일 차는 강진읍 상권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쿼츠, 장보기 미션 등을 팀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일 차는 박지혜 아나운서를 초청해 강진만 생태공원,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힐링 요가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션투어'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국에서 50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 강진을 방문하여 미션 소개와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 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로드 영상 중 우수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계행사로 진행되는 '강진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LIVE를 통해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강진책방, 동백오일, 한입전병, 쌀귀리, 작두콩차 등 다양한 강진의 특산물과 청년창업으로 개발된 오트릿의 스무디밀과 귀연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나운서 출신의 전문 MC와 많은 팬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2021 강진 GOOD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춘천시 춘천문화재단, 소외지역에 '공연 선물'로 찾아가다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출연자와 공연 희망시설 모집



춘천문화재단 2021년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출연자와 개최 희망 지역을 공개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문화재단은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를 통해 읍·면 단위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사하여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출연자의 신청 자격은 지역 내 공연 분야 전문예술인(단체)이며 2021

년 6월부터 11월 동안 지역 곳곳의 무대를 함께 꾸밀 예정이다. 출연자에 따라 30분 또는 60분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며 공연에 필요한 음향, 무대, 엔지니어는 재단이 제공한다.

출연자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5월 10일 1일간 춘천아트라운지에서 신청서 접수 입력 도우미를 운영한다. 더불어 희망시설 및 기관의 접수에 이메일로 가능하며, 코로나 추이에 따라 공연이 가능한 지역(공간)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최재은/기자

보은군 한우농가 맞춤형 종합컨설팅 추진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일 보은읍 금굴리 금굴농장에서 보은군한우개량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개량, 번식, 사양, 환경, 질병 등 5개 분야에 대해 현장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축산과학원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은 축산물 수입증가, 사료비 상승, 국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현장기술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 현지 방문시 전문컨설팅을 실시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한우개량연구회 관계자는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번식 및 환경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홍은표 소장은 "축산농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축산농가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6회에 걸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태안군, '미래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를 꿈꾼다'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박차!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감하는 에코힐링형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준비

태안군이 서해안 유일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6일 군에 따르면, 태안군 남면 달산리 955-39번지 일원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857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올해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기존 본관동과 부속동으로 나뉘던 건물 설계를 단일건물로 변경하고 다양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시설과 기능성 풀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우선, 해수마사지를 할 수 있는 어퓨전사위, 냉온수욕은 물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독일 자연치유요법인 크나이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해염 마사지 시설인 솔트인헤일, 다양한 허브 및 약초를 활용한 허벌미스트, 피부 및 두피 미용 시설인 페이스 앤 스킨케어 등과 함께 스포츠 재활센터, 숙소, 푸드코트, 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를 고려한 휴게공간인 옥상정원, 가족 및 그룹단위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녹음 휴게마당인 패밀리가든을 비롯해 태안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보타닉 가든이 포함된다.

이에, 군은 태안의 특색 있는 치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체류형 관광 유도 등을 개발전략으로 삼아 태안을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메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은 "태안은 수도



권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태안을 미래 해양 치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면 생산유발효과 64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 그리고 약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은/기자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드림·Dream멘토링 비대면 발대식 및 집단활동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는 5월 1일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2021년 드림·Dream멘토링 발대식 및 집단활동을 실시했다.

드림·Dream멘토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생과 1:1로 결연을 맺고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7팀이 함께한 이번 발대식 및 집단활동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멘토-멘티 자기소개, 친밀감 향상을 위한 레크레이션, 1:1 소그룹 대화나누기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활동 지원을 위해 방역키트가 포함

된 멘토링 박스를 17명의 멘토단체에게 개별 발송하였다.

멘토링 사업은 12월까지 운영하며 정서적 지지와 진로탐색을 위한 개별·집단활동, 멘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수퍼비전, 점검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드림·Dream멘토링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산나물마켓데이 행사 '2천 2백 10만 원' 판매성과

태백시는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농업인들을 위해 진행했던 산나물마켓데이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통해 당초 판매목표액 1천 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2천 2백 10만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태백시청 주차장에서 산나물마켓데이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를 했다. 태백고원산채연구회와 산마늘연구회가 참여하여 현장 판매 및 주문 수령을 담당했으며, 태백의 대표적인 임산물인 곱취, 어수리, 산마늘, 절임소스, 산마늘 세트 등 6종을 판매했다.

또한, 가족 및 지인 선물 등을 위한 택배와 전화 주문 판매도 동시에 진행

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태호 시장 부부를 비롯하여 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 김혁동 도의원, 이상호 도의원, 정미경 부의장, 심창보 시의원, 문관호 시의원, 박세진 농협중앙회 태백지부장, 김병두 태백농협조합장이 참여하여 판매에 힘을 보탰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판매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임산물 농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판로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당진시, 자체 문자 서비스로 코로나19 정보 제공

'미리미리 알리미' 서비스로 시민 불안감 최소화

당진시는 이번 달 1일부터 '미리미리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송출 지침 변경으로 코로나19 재난문자가 1일 1회에 한해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현황만 안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자체 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했으며, 제공 내용으로는 ▲확진자 발생상황 ▲이동 동선 ▲검사 결과 ▲조치 계획 등이 다.

코로나19 소식! 이제 미리미리 알리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미리미리알리미에 쉽고 간편하게 가입 신청하면

- ① 확진자 발생 상황
- ② 이동 동선
- ③ 검사 결과
- ④ 조치 계획

휴대전화 문자로 누구나 정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문자발령을 희망하는 당진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PC 또는 휴대전화로 간편히 신청 (<http://www.dangjin.go.kr/sms>)

문의전화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041-350-3236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시에 따르면 당초 '미리미리 알리미'는 시의 주요 행정정보나 갈등 유발예상시설을 사전에 고지 및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 정분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리미리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당진시민 3400명이 이용 중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제22회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수상자 선정



금산군은 지난 4월 말 금산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8개 면사무소에 토양검정을 위한 토양우체통을 설치했다.

이 검사는 작물에 적합한 시비량을 추천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금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각 면사무소에 비치된 사료 봉투에 토양을 담고 성명, 지번, 전화번호를 기재해 토양우체

통에 넣으면 되며 4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토양우체통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금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토양검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 증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번 토양우체통 설치가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도봉구 이동진 자치분권대학 총장, 자치분권대학 석좌교수 위촉패 전달

이동진 자치분권대학 총장, 자치분권대학 석좌교수 4인 위촉패 전달

이동진 자치분권대학 총장이 2021년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석좌교수 위촉패 수여 및 교수 간담회를 위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치분권대학 여의도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번 위촉식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치분권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수들을 자치분권대학의 석좌교수로 위촉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동진 자치분권대학 총장은 이날 자리한 석좌교수 임명자 4인 △최진혁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송광대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사회전반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치분권대학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교육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자치분권 필요성과 그 의미가 편안하게 전달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자치분권대학 총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기존의 자치분권대학 교수님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노력들이 축적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조직적인 문제제기로 대학이 출발하여, 그 첫 강이 도봉구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오늘 이자리도 교수님들을 통해 조인을 얻고, 자치분권대학이 더 발전해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치분권대학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약을 맺은 자치분권 교육기관으로, 지난 4



월 15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도 추대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자치분권대학은 2017년부터 매년 전국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캠퍼스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는 모두 37개다.

최광수/기자

2020년도 시군도 분야추계 도로정비 상주시 전국 1등

상주시 중앙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상주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추계 도로정비』시·군·도 분야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에 시상으로 우수기 및 공무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추계 도로정비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15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실태에 대한 점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겨울철 제설 대비 상태 등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위임국도 2개 노선, 지방도 2개 노선, 시군도 364개 노선, 농어촌도로 380개 노선 745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추진 실적과 수해복구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등 전부문에 최고점을 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로정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 도로정비 효율성이 뛰어난을 입증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과 도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이천제일고 식품가공과 학생들, 어버이날 맞아 직접 만든 간식 노인종합복지관 기부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 제공

이천제일고등학교 1학년 식품가공과 학생들은 지난 3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마들렌과 양갱을 만들어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학생들은 학급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식품가공기술 교과 실습시간에 배웠던 제품 중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실만한 제품 2가지 마들렌과 양갱을 선정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마들렌과 양갱을 만들었다.

만든 제품을 포장하는 방식 역시 학급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학급 대표 5명을 선정하여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뜻깊은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활동의 의미가 크다.

특히 기부 시기가 어버이날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효의 실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이천제일고 심정화 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조성되길 바라며 더욱더 활성화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제일고 1학년 식품가공과 학생들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 전공 관련 기술을 재능기부 방식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태권도부, 전국태권도대회 3인조 지명전 우승

코로나19 약제 속에서도 우승



인천광역시 동구 여자태권도부가 지난 4월 30일부터 열린 제15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해 3인조 지명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일 열린 3인조 지명전 결승에 출전한 동구청 여자태권도부는 주장 윤정연 선수를 필두로 김다영, 조희경, 안유란 선수가 출전하여 5인조 단체전에서는 3위를 차지, 개인전에서도 최수영(-46kg급), 안유

변재현/기자

안양농협, 나눔으로 행복한 사랑의 꾸러미 전달식

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은 지난 2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안양농협 봉사단체인 농가주부모임 회원 30명과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면 남성 독거노인과 사회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주물럭, 열무김치, 라면, 김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각 가구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윤명희 도의원, 백광철, 위등, 왕윤재 군의원 및 윤양현 안양면장 등이 봉사 활동에 참석했으며, 특히 정 군수의 부인인 한혜옥 여사도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에 참여

해 두 팔을 걷고 힘을 보탤다.

농가주부모임 백연심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농가주부모임이 봉사단체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안양농협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양농협 김영중 조합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나눔의 정을 함께 해 준 봉사단원들께 감사하다"며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음성군 금왕읍 노인회 분회, 토지매입 성금 기부 줄이어

금왕읍 노인회분회의 토지 매입에 대해 지역사회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강성근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기부행렬은 김기덕 한국공인중개사 음성군지회 금왕분회장을 이어 지역발전협의회 정용대 회장과 봉곡 2리 성기타 이장으로 이어졌다.

정용대 지역발전협의회장과 봉곡 2리 성기타 이장은 노인회분회 토지

매입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4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각각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용대 회장과 성기타 이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기탁한 성금이 토지매입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 원만히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병택 금왕읍 노인회분회 토지매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최만식/기자

로 힘든 시기임에도 큰 금액을 기부해준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금왕읍 노인회분회는 사무실 부지매입과 관련해 지난 3월 도유지 65㎡(약19.6평)에 대해 매입을 결정하고 토지매입 위원회를 구성해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안산시, 윤현지 선수 아시아유도선수권 우승 봉납식 개최



안산시는 시청 유도부 소속 윤현지 선수의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 선수권 대회' 우승 봉납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윤현지 선수는 지난달 6-9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78kg급 결승전에서 중국의 마전자오에게 지도 3개를 이끌어내며 금메달을 걸었다.

특히 준결승에서 도쿄 올림픽 티켓을 다투는 국내 라이벌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 선수를 꺾으며 올림픽 랭킹을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려 올림픽 메달획득을 향한 힘찬 질주를 이어갔다.

안산시청 유도부는 이번 대회 외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세계적인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안산시를 빛내고 있다.

전날 열린 봉납식에서 윤화섭 시장은 윤현지 선수를 격려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안산시를 빛낸 윤현지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유도부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위드코로나 시대... 부산시 축제 체계 전환

새로운 시대, 코로나 시대의 긍정적 산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축제 재편 추진

부산시는 박형준 신임시장 취임과 함께 4월 유채꽃축제를 시작으로 2021년 '위드코로나 시대' 축제의 패러다임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부산시 주축 축제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기존 대규모 집객 밀집형 축제에서 소규모·분산, 온·오프라인 병행의 축제방향을 마련하여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다각적 축제모형을 기획·발굴하여 추진한다.

축제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는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과 각분야 합력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축제 관련 공연기술업계와 문화예술인, 기획자,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축제의 생태계 유지와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다가오는 5월 ▲원도심 축제(개별·분산, 사전예약형 안전한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북극곰 축제(SNS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고객층 유인,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행사) ▲바다축제(부산 여름 대표축제, 자유로운 분위기의 창조적 발상 전환 시도) ▲록페스티벌(피크닉 지정석 운영, 해외 및 국내출연진

온·오프라인 병행) 등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단절에 지친 시민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축제들을 시도하고, 축제의 체계 전환을 통해 환경, 약자, 새로운 가치와 다양한 의미가 공존하는 행사를 선도하며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4월 한달간, 낙동강유채꽃 축제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유채버스 운행, ▲유채미니정원 ▲유채꽃다발 배송 등 '찾아가는 유채꽃' 컨셉으로 진행된 유채꽃 축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비대면 축제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봄을 맞아 노란 유채꽃 옷으로 갈아입은 유채버스(시내버스) 5대는 30일간 부산시내 구석구석을 700회 이상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봄 인사를 건넸다. 유채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여객 관계자는 "버스차고지 근처의 주민들이 유채버스 사진을 찍으려고 버스 노선 근처에서 기다릴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유채버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유채버스 운영기간을 한달 더 연장해 5월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역 화훼농가, 플로리스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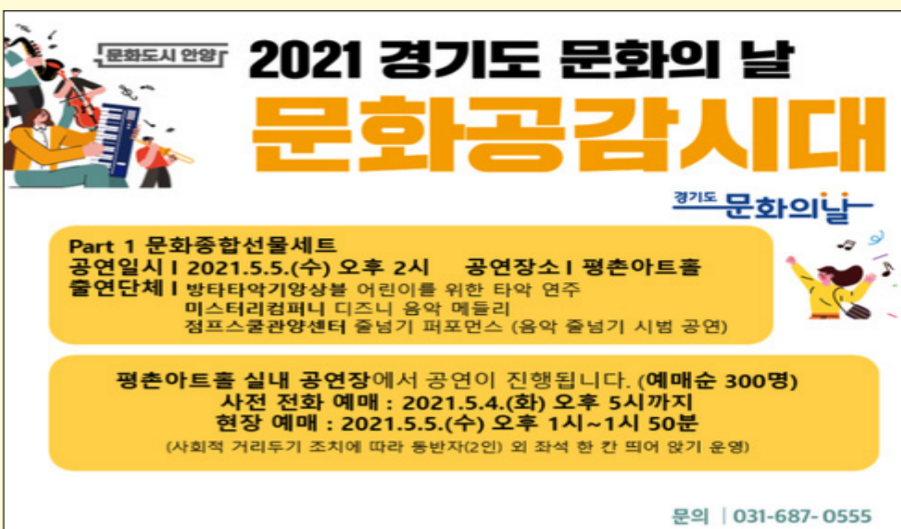


과 협업으로 진행된 유채꽃배송 '유채꽃'은 배송 모집 3일간 1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부산 지역 내 총 500곳의 가정에 노란 유채꽃이 배달됐고, 시민들은 SNS에 각 가정을 장식하고 있는 유채꽃 사진을 올리며 꽃의 싱그러움을 함께 즐겼다. 한 시민은 본인의 SNS 계정에 "집으로 생 각지도 못한 낙동강 유채꽃이 배달 왔다. 봄을 선물해준 부산시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서 땀흘리는 방역종사자 및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도 총 100건의 유채꽃다발을 보내, 잠시나마 봄의 기운이 전해지도록 했다.

남궁영기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 어린이날 '문화종합선물세트' 준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공감시대] 첫 프로그램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5월 5일 어린이날 평촌아트홀에서 어린이 맞춤 '문화종합선물세트'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 중 첫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목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총5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또는 어린이날, 추석명절이 포함된 주간에 평촌아트홀과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지역밀착 맞춤형 공연을 경기도와 안양시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첫 공연은 5월 5일(수) 오후 2시 평촌아트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 맞춤형 '문화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방타타악기앙상블, 미스터리컴퍼

니, 점프스쿨관악센터가 출연해 디즈니 음악 메들리부터 음악 줄넘기 시범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재단은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문화로 위로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공연 관람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과 달리 우천 소식으로 인해 야외무대가 아닌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사전 전화 예약 시 우선 관람 가능하며, 잔여 좌석은 공연 당일 현장에 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종균/기자

양주시, 박은경 개인전 '우소의 즐거운 하루'展 개최

꽃, 식물 등 싱그러운 봄의 감각을 전달하는 작품 20점 공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5월 20일까지 시청 3층 감동갤러리에서 '우소의 즐거운 하루'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일상 속 사물들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박은경 작가의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색연필, 크레파스 등의 재료로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들에 대한 순수한 내면의 잔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꽃, 식물, 화병과 같이 삶의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상들을 밝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담아낸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일고 있었던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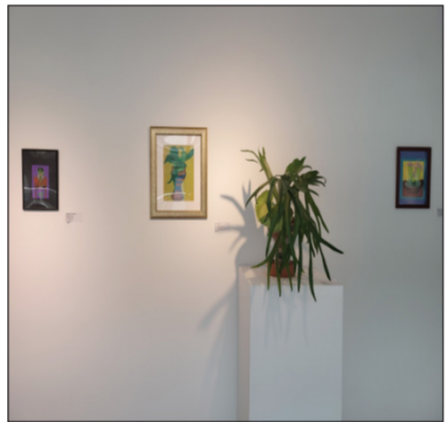
특히 2018년도 작품인 '휴식'은 깊이감 있는 푸른색 배경 위에 그려진 샛노란 화병과 꽃이 극적인 대비를 이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 이외에도 경쾌한 노란색 배경이 인상적인 '박쥐날'(2018), 갓 피어난 다육식물의 생명력을 그린 '어린 다육'(2020) 등 싱그러운 봄의 감각을 전달하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박은경 작가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작가가 향후 예술세계를 자유분방하게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생각해보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감동갤러리는 지난



2017년 7월 '우리동네 작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조성한 공공기관 내 문화 향유 공간으로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의 운영 아래 다양한 전시들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수/기자

은평문화재단 패밀리워크, 온(ON) 가족이 함께 보는 동화 개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여

은평문화재단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14일부터 22일까지 2주 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을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은평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받은 것에 발맞춰 패밀리워크 기획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어린이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준비되었다. 패밀리워크 첫째 주에는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다' 공연을 5월 14일, 15일 양일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2004년 초연되어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관람한 작품이다. 주인공 펀치넬로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을 이겨내고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둘째 주 5월 21일, 22일에는 뮤지컬 음악동화 공연이 진행된다.

코로나로 방에 록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야기꾼의 노래와 다양한 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다.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작품 속 인물을 넘나드는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오스카 와일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평문화재단이 준비한 패밀리워크 공연은 모두 온라인 생중계되며 재단 공식 유튜브, 네이버TV에서 실시간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은평문화재단 관계자는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온라인 공연을 통해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문화재단 공연예술팀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순/기자

제48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온라인 행사 개최

5월 5일 부산시청차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테마 방송 실시간 송출

부산시는 '제99회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을 맞아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제48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날 당일 테마프로그램은 ▲(1부) 오후 1시 '랜선 학교 가자'와 ▲(2부) 오후 2시 '랜선 파자마 토크쇼'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산시 바다TV와 부산일보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1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리아 놀자'와 함께하는 신체 놀이, 꿈 3가지 놀이, 릴레이 퀴즈 놀이 등 3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릴레이 퀴즈 놀이에는 어린이들의 어벤져스 '어린저스'가 특별손님으로 깜짝 등장할 예정이다. '어린저스'의 정체는 행사 당일에 확인할 수 있다. 2



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이제이튜브'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토크쇼, 파티 장식 꾸미기, 온라인 쿠킹클래스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토크쇼 형식의 행사다.

또한, 5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어린이주간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참여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신춘문예 삼행시 ▲아동학대 예방 한마디 캠페인 ▲어린이 난센스 퀴즈 ▲전국 우리아이 자랑 ▲엄마·아빠

의 어린이날 등이 운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아동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온라인 놀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잘 놀고, 즐거운 경험을 맘껏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수원문화재단 다시 돌아온 웃기는 다섯 남자들의 빵빵 터지는 개그쇼

2018년 12월 연말 특별공연 당시 객석 점유율 97.3%의 큰 호응을 받았던 '쇼그맨'이 3년 만에 수원SK아트홀에 돌아왔다.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배)은 오는 29일 수원SK아트홀 기공공연 '쇼그맨2'를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지난 시즌보다 더 강력한 웃음 폭탄을 장착한 '쇼그맨2'는 김일호, 김재욱, 박성호, 정병문, 이종훈 인기 개그맨 다섯 남자의 개성과 끼가 넘쳐나는 5인 5색 종합 퍼포먼스 쇼이다. 출연자 5인의 노래와 춤, 연기, 마술, 개그 등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레이저쇼가 함께 더해져 그 화려함을 더한다. 또한, 쇼그맨2를 예매한 관람객 50명을 대상으로 '쇼그맨2 미리보기쇼'를 진행한다. 수원SK아트홀 스테이지 투어의 일환으로 기획한 '쇼그맨2 미리보기쇼'는 본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출연자 정병문의 사회로 진행하며 공연 에피소드와 공연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Q&A 형식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출연진과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수원SK아트홀 기공공연



'쇼그맨2'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통해 우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길 기대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화려한 연출과 강력한 웃음으로 다시 돌아온 쇼

그맨2'는 남녀노소를 불문, 누구나 웃고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배리어티 공연으로 관객에게 웃음 폭탄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하늘 나는 무인잠수정 등 5개 '혁신도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민간 주도 범부처 R&D 사업 기획 완료...사업기간·세부과제 등 수립

정부는 하늘을 나는 무인잠수정, 폐유기물의 기초원료 재자원화 등 고난도·임무 기반 테마 5건의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지난해 발굴 연구테마 5건에 대해 사업기간, 세부과제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가가 주도로 고난도·임무형 R&D를 발굴·기획하고, 사업 수행과정 전반에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하는 범부처 R&D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국가 R&D의 임무지향성과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십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정민형 추진단장이 선임된 이후 부처·산학연 대상 공모, 출연연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한 400여 건의 연구테마들을 검토하고 외부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5개 테마를 선정했다.

이후 약 5개월간 각각의 테마를 개별 R&D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세기획을 관계부처 참여 하에 진행했다.

먼저 폐유기물의 기초원료(C2 단량체)화 공정기술 개발 관련 테마를 보면, 폐유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처리하는 기존 방법은 비용과 환경오염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판매 가능한 에틸렌·아세틸렌 등 기초원료로 재자원화하기 위한 테마다.

폐유기물을 고비용 처리대상에서 고수의 판매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각·매립·재활용 시 발생하는 CO2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있다.

고·액·기체 등 모든 형태의 폐유기물을 플라즈마를 활용해 초고온·단시간에 기초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은 세계최초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도전성이 인정된다.

또한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 무인잠수정(AUV) 기술개발 관련 테마의 경우 기존의 해난사고 대응은 출동준비 시간, 통신두절, 조류에 의한 선박위치 불명 등으로 신속·정확한 해난대응에 제한되며, 특히 악천후 시에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수공양용 AUV 개발을 통해 언제든 구조대보다 먼저 신속하게 공중이동, 사고선박 위치추적 및 조기사색으로 원활한 후속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해난대응 시스템 구축 테마다.

해난사고 즉시, 선박을 추적·수색함으로써 해난구조의 신속·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헬기·선박과 달리 악천후에도 가동할 수 있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되며, 해수·공중의 상이한 두 환경을 모두 만족하는 기체 설계의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테마다.

아울러 다목적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관련 테마의 경우 위성 중심의 기존 기상관측 체계로는 태풍·폭우·폭설 등 국지·돌발성 기상을 항시, 신속·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구름·바람이 약하고 태양광이 풍부한 성층권에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 위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시·정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테마다.

항시·정밀관측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기상·재난 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성(태양광)·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점에서 혁신성이 있으며, -70도의 극한 환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장기체공을 위한 저동력 시스템 설계의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테마다.

이와 함께 자폐성 장애 치료를 위한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의 테마를 보면, 자폐성 장애는 완벽한 원인치료 방법·약물이 없어 증상완화를 위한 안정제 및 발달·학습 프로그램에 의존 중이며, 의료 인프라 등 치료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조기 발견 실패 시 중증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폐를 조기 진단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의료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학교 등 일상에서 자폐성 장애를 연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테마다.

자폐성 장애를 일상생활에서 치료·관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디지털 치료제와 달리 앱·게임 등 SW뿐만 아니라 센서·카메라·VR 등 HW를 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혁신성이 있다.

생체신호·행동패턴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도전성이 인정된다.

초대용량 빅데이터 영구보존을 위한 DNA 메모리 기술개발 관련 테마도 있다.

이는 현재의 실리콘 기반 메모리 기술로는 폭증하는 데이터를 안정적·영구적으로 저장 및 보존하는 데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에 따라, 저장밀도가 높고 영구보존이 가능한 DNA의 특성을 활용해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홀드 데이터의 초저전력·영구 보존이 가능한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테마다.

폭증하는 인류의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없이 획기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초저전력·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아직 세계적으로도 연구 시작단계이고 데이터를 DNA로 정교하고 빠르게 저장·합성·시퀀싱하는 데 있어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테마다.

5개 테마는 각각 관계부처 주관



아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민간 전문가가 출신 사업단장이 사업 전주기를 주관하는 사업단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기술구입, 목표재조정, 조기종료 등 유연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각 테마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기술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사업을 통해 상용화 등 성과를 확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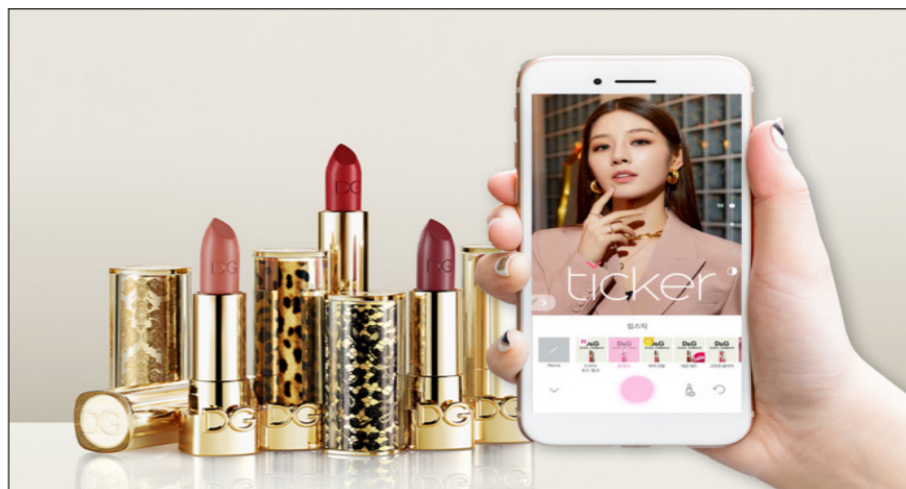
정민형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은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정부 부처·연구계 등의 제안을 폭넓게 검토해 고난이도·임무기반의 도전적 테마를 선정 및 기획했다"면서 "향후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 R&D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테마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대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는 논문·특허 등 양적성과보다는 임무목표에 기반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국가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안전·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임무목표를 기반으로 발굴·기획한 5개 연구테마가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타키온비엔티, '스타일테크' 3기 유망기업 선정

타키온비엔티, AR 뷰티 플랫폼 티커(Ticker)로 '스타일테크' 발탁



차세대 뷰티 테크 기업 (타키온비엔티(Tachyon B&T, 대표 강덕호)가 5월 4일 '스타일테크' 3기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원장 윤주현)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주관하는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스타일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스타일테크'는 패션, 뷰티 등 스타일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대·중견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자금, 공간, 멘토링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 1~2기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 40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특히 2기에는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협력 5건, 유망기업 12개사에 54.7억 원 투자 유치 등 우수한 협력 성과를 거둔 바 있다.

3기에는 스타일테크 기업이 기존 플랫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견기업 협업 기회 ▲디자이너 전문 인력 지원 ▲프로토타입 제작비 ▲데모데이 참가 기회 ▲서울 주요지역 내 패션·뷰티 산업 집적지 인근 공유 오피스 지원 ▲다양한 분야 멘토링 및 전문가 컨설팅 ▲체험전시 공간 제공

최광수/기자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연구개발특구 및 주변지역 14,514필지를 대상으로 6,839명 부동산 거래 조사

부산시가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자체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진행하여 ▲1건은 토지취득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 할 수 없었고 ▲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직원 본인(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1,466명(100%), 직원가족은 부산시·강서구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761명(95.7%)이고, 퇴직자(본인, 가족포함)는 부산시·강서구는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이다.

또한,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6,000여 명 정도로 현재 직원 동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서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서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를 검토 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남궁영기/기자

경북도, 바이오프린팅 산업 육성... 국비 75억원 확보

기능성화장품·의약품 개발기업의 동물대체시험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추진사업에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165억원(국비 75, 지방비 90)을 투입하게 되며 3D바이오프린팅 기반 인공장기를 활용하여 기능성화장품·의약품 개발 기업의 동물대체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양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은 포항직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기관별 역할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장기 기술개발, 인공장기 활용 시험평가 지원 등을 수행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는 인공장기 제작을 위한 생체재료(돈태반) 자원화, 바이오잉

김세기/기자

경기도, 뷰티기업 임상시험비 최대 1,400만 원 지원...화장품 제품 신뢰성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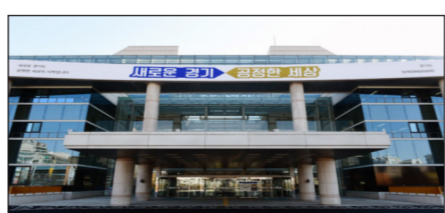
경기도가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부담 완화와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확산을 위해 '2021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백, 탄력, 각질 등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의 수행기관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공모를 통해 총 12개사를 선발, 기능성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 등 임상시험비용을 기업 1곳 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조금 지원금의 30%는 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과제의 모집기한은 5월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경기중소



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수/기자

박기영 '넬라판타지아' 조회수 세계 1위... "원곡자에게 죄송"

박기영 '넬라판타지아' 2300만회, 원곡자 사라 브라이트만 400만회... 약 6배

뮤지션 박기영이 자신이 부른 '넬라판타지아'의 라이브 영상 조회수를 공개하며 원곡 가수인 사라 브라이트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박기영은 30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다. 박기영의 '스케치북' 출연은 11년 만에 이날 방송에서 박기영은 자신의 대표곡 '시작'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열었다.

박기영은 MC 유희열과 토크에서 근황을 전하며 "'넬라판타지아'를 KBS '불후의 명곡'에서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상이 현재 조회수 2300만회 정도를 기록 중이다"라고 공개했다.

이 조회수는 전 세계 '넬라판타지아' 라이브 영상 중 단연 최고 기록이며, 원곡자인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판타지아'의 400만회 보다 월등히 앞선다.

유희열이 "사라 브라이트만도 당연히 박기영 씨의 버전을 들어봤을 것 같다"며 "자신보다 조회수가 높아서 혹시 악플을 달지나 않았을까 싶다"고 농담을 하자 박기영은 "원곡자에게는 너무도 죄송한 일"이라며 회답했다.

박기영은 2012년 방송된 tvN '오페

라스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클래식 창법을 전문적으로 배워 2015년에 대중가수 최초로 크로스오버 앨범을 발표했다. 박기영이 부른 크로스오버 곡들은 발매 당시 국내 클래식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다.

이날 박기영은 '넬라판타지아'를 즉석에서 부르기도 했다. 4옥타브 도까지 올라가는 고음에 유희열은 "소름 끼친다"며 "이러니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감탄했다.

박기영은 '넬라판타지아' 뿐 아니라 자신이 출연한 뮤지컬 '보디가드' 공연 당시 이야기도 전하며 무반주로 'I will always love you'도 불러 유희열을 다시 한 번 감탄시켰다. 또 즉석에서 유희열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해주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스케치북' 방송에 앞서 박기영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온라인 콘텐츠 '유희열 노래방'에 딸 가현 양과 함께 출연했다. 가현 양은 엄마를 대신해 '만보기 달고 노래 부르기' 미션을 수행하며 두아 리파의 'Don't Start now'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다.

가현 양은 박기영의 신곡 '아임 나트 오케이'(I'm not OK)에서 작곡과 녹음에 참여하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날 '스케치북'에서 박기영은 '시작'을 비롯해 '마지막 사랑' '넬라판타지아' 'I will always love you', 신곡 '아임 나트 오케이'까지 총 5곡을 불렀다.

특히 '아임 나트 오케이' 무대에는 국내 최정상 일렉트로닉 뮤지션 DJ 렉스(DJ Wreckx)와 뮤지컬 '보디가드'

에서 함께한 퍼포먼스 팀까지 동원해 화려하게 꾸몄다.

한편 박기영은 '아임 나트 오케이'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 곧바로 공연을 통해 음악 팬들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미스트롯 배출 걸출한 인재 '아기호랑이' 김태연 부안군 관광홍보대사 위촉



부안군은 3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미스트롯2가 배출한 걸출한 인재 '아기호랑이' 김태연양을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안 출신 국악신동으로 유명한 김태연양은 미스트롯2에 참가해 부안 출신임을 강조하며 부안을 전국에 알렸고 앞으로도 부안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김태연양이 군민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주는 행사나 전국적으로 부안을 알리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연양은 "부안군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고향인 부안의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 부안에서 태어난 인연을 소중히 여겨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큰 경연대회에 참가해 부안을 알리고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셔서 고맙고 대견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 대한민국 연기돌 11인 총출동!

1세대 아이돌 데니안→4세대 아이돌 에이티즈

KBS '이미테이션'에 1세대 아이돌 데니안부터 4세대 아이돌 에이티즈(ATEEZ)까지 대한민국 연기돌 11인이 총출동한다.

오는 5월 7일 첫 방송하는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현실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이 흥미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테이션'은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연기돌들의 활약을 예고해 기대를 끌어올린다. 먼저 1세대 아이돌 god의 데니안과 베이비복스 출신의 심은진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극중 데니안은 황금 인맥을 갖춘 능력 만능의 티파티 기획사 대표 '지학'으로, 심은진은 아이돌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는 '변기자'로 분한다. 이에 두 사람은 다수의 작품으로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후배 연기돌들을 이끌고 받쳐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세대 아이돌로 데뷔해 현재는 명실공히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준영과 박지연이 각각 최정상 아이돌 샹스의 센터 '권력'과 톱 여자 솔로가수 '라리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출중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온 만능 엔터테이너 이기에, '이미테이션'의 중심 축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갈 이준영, 박지연의 연기 활약을 기대가 모아진다.

이에 더해 현역 아이돌들의 반란이 예고돼 관심을 높인다. SF9의 멤버인 휘영과 찬희는 최정상 아이돌 샹스의 멤버 이현과 은조로 분한다.

특히 웹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키워온 휘영은 '이미테이션'으로 첫 지상과 데뷔를 알리며 이목을 끈다. 그러나 하면 때 작품마다 시청자의 뇌리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찬희는 '이미테이션'을 통해 또 한 번 강한 임팩트를 선사할 것으로 관심을 높인다.

이에 더해 국민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출신인 임나영은 극중 걸그룹 티파티의 비주얼 담당 '현지' 역을 맡았다. 최근 임나영은 웹드라마 '썸머가이즈'에서 캐릭터의 감정선과 성장과정을 안정적 연기로 표현해 내며 호평을 이끈 바 있어 그의 연기



에 기대가 쏠린다. 뿐만 아니라 대세 아이돌 에이티즈(ATEEZ)의 멤버인 윤호, 종호, 성화, 산이 '이미테이션'을 통해 처음 연기에 도전하며 연기돌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윤호와 성화, 산은 각각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의 센터 '유진'과 멤버 '세영', '민수' 역을, 종호는 샹스의 막내 '혁' 역을 맡았다.

특히 윤호는 "첫 연기 도전인 만큼 발음이나 표정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습했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면서 작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어, 화려한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에이티즈의 첫 연기 데뷔에 관심이 증폭된다.

이처럼 '이미테이션'은 배우뿐만 아니라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돌들이 총출동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그리는 새로운 아이돌 세계라는 점

이 흥미를 더욱 자극하는 바, 일주일 뒤 안방극장을 찾아올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6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0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샹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예비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제작진으로 '신입사관 구해령', '술로몬'의 위층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의 만남이 이뤄져 기대를 높인다.

한편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오는 5월 7일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이혜리 주연 캐스팅 확정! 특 쏘는 매력X달콤 쌉싸름한 케미 기대!

하반기 기대작 '꽃 피면 달 생각하고'가 유승호, 이혜리 주연 2인 캐스팅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원작주의 감칠맛과 술 빛은 여인으로 변신해 특 쏘는 매력과 달콤 쌉싸름한 케미를 완성할 두 배우의 만남에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연출 황인혁 / 극본 김주희 / 제작 (유)꽃피면달생각하고문화산업투자회사 (주)문스터유니온 (주)피플스토리컴퍼니) 측은 3일 "유승호, 이혜리가 각각 주인공 남영과 강로서역에 캐스팅됐다"라고 밝혔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숙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이전까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술과 금주령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 금주를 단속하는 감찰과 술을 빚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흥미 유발 스토리 때문에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승호는 입심양명을 위해 한양에 상경한, 능력 출중 사헌부 감찰 '남영'을 연기한다. 남영은 "깎아 놓은 받침처럼 잘생긴 얼굴, 대나무처럼 꽃꽂한 자세, 고고한 학이 날아가는 듯

한 걸음걸이"의 소유자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지조와 절개를 지킬 인물이자, 걸어 다니는 사서삼경으로 남에게는 물론 자신에겐 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하다. 남영은 아침 차게 시작한 한양 살이 중 예측불허한 인물 강로서를 만나 대혼란에 빠진다.

사극이면 사극, 로맨스면 로맨스 장르 불문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유승호는 '군주- 가면의 주인' 이후 4년 만에 사극에 출연해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혜리는 금주령의 시대, 백 냥 빛을 갚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하는 가난한 양반 처자 강로서로 변신해 인생 캐릭터 경선에 나선다.

로서는 귀티나는 외모와 달리 돈 되는 일이라면 힘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양반이 체면도 모른다든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유일한 희망인 오락비 뒷바라지하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다양한 작품에서 톱 톱 튀는 매력을 뽐내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을 받은 이혜리가 금주령의 시대에 '선 넘는' 로서 캐릭터에 어떤 에너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웰 메이드 장르물 '닥터 프리즈너'를 비롯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어센블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력을 자랑한 황인혁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황인혁 PD가 두



정춘스타 유승호, 이혜리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유승호와 이혜리, 극 중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높은 찰떡 캐스팅을 완료했다. 이들이 빚어낼 탁주처럼 특 쏘고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며 "감각적인 연출력을 자랑하는 황인혁 PD와 정춘스타 유승호, 이혜리의 만남과 금주령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선한 이야기까지. 연출, 배우, 소재 3박자가 근사하게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올해 하반기에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최근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 대본 리딩을 완료했다. 5월 중 첫촬영을 시작해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메인 예고편 공개

5월 19일 개봉하는 올해의 가장 따뜻한 문제작 '혼자 사는 사람들'이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1인분의 외로움을 간직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2021년 5가구 중 2가구가 '1인 가구'인 홀로족 시대인 지금,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세밀하게 묘사해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혼자 사는 사람들' 메인 예고편은 '진야(공승연), 수진(정다은), 성훈(서현우)이 저마다의 외로움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직면하는지 담겨 있어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혼자 밥을 먹던 '진야'가 갑자기 들려온 콩 소리에 놀라는 장면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뒤엎든", "관계의 신중함"의 카피라인이 깔리며 혼자 밥을 먹고, 혼

자 일하고, 혼자 잠들던 '진야'의 일상에 어떤 파문이 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진야'의 직장 후배이자 신입사원 '수진'이 "저 선배님처럼 같이 점심 먹어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모습과, 진야의 옆집에 새로 이사온 남자 '성훈'이 "그쪽은 원래 그렇게 뭐든지 화가 나요?" 라고 묻는 장면은 '진야'와 '수진', 그리고 '성훈'이 서로 엮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각자 어떤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될지 궁금하게 만든다.

특히 예고편 후반부에, 콜센터의 에이스 상담원답게 사무적으로 일하는 '진야'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사실상에서 전화할 땐 어렵지 않았는데"라고 전화 너머에 건네는 '진야'의 말은 감정노동의 콜센터 일보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2030 홀로족

들의 공감대를 자극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통해 스크린에 서 첫 관객을 만나는 배우 공승연, 독립 영화계의 떠오르는 셋별 정다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드라마 '약의 꽃' 등으로 얼굴을 알리며 강렬한 존재감으로 급부상한 배우 서현우, 세 배우들이 만들어낸 현실공감 홀로족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단편 '굿 파파'(2018)로 주목받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신예 흥성은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다.

홀로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 '혼자 사는 사람들'은 2021년 올해의 가장 따뜻한 문제작으로 5월 19일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